

# 쉐도잉(Shadowing) 활동이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리듬 학습에 미치는 영향

김미선 · 정현성\*

(제천세명고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Kim, Mi Seon · Chung, Hyunsong.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Shadowing Activities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of English Rhythm.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8(2), pp.433-45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shadowing activities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rhyth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hadowing activities on the English rhythm, students were grouped into a shadowing activity group and a listen & repeat activity group. Variability indices of syllables were acoustically measured to calculate the rhythm of the students while two native speakers of English participated in evaluating perceived English rhythm of th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shadowing activities as well as listen & repeat activities c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rhythm, while shadowing activities showed a larger effect size than listen & repeat activitie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carried out an objective rhythmic calculation of utterances using acoustic measurements as well as perceptual evaluation of native speakers'. These objective and subjective evaluations of English rhythm could make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 rel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high school English teachers could help their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 in pronunciation activities and improve their English rhythm using shadowing activities appropriately.

---

\* 교신저자

## I. 서론

본 연구는 쉐도잉(shadowing)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학습자의 리듬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쉐도잉 학습 활동에 따라 리듬 수업에 참여한 집단과 듣고 따라 하기(listen & repeat) 활동에 따라 리듬 수업에 참여한 집단을 비교, 연구 하였다. 리듬의 향상 정도는 개별 음절의 길이를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측정된 후 개별 발화의 리듬을 계산한 음절 변이 지수(VI: variability index)와 원어민의 청취 평가 점수를 각각 구해 분석한 후 두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도 구하였다.

현 중·고등학교교육 과정에서 말하기 학습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말하기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발음 교육은 교사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교육 여건 등의 외재적인 요인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신감 부족이라는 내재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정현성, 정소현, 2008). 특히 리듬을 비롯한 초분절음에 대한 교육은 수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려는 많은 교수 학습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그림자처럼 따라 읽는 쉐도잉 학습법이다.

## II 선행 연구

### 1. 쉐도잉 학습법이 영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

쉐도잉 학습법은 학습자들에게 입력과 동시에 출력을 요구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듣고 따라하는 학습법에 비해 한층 집중력을 요하는 능동적인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어민의 발화를 거의 동시에 따라 하는 훈련을 통해 영어의 분절음 뿐 아니라 강세와 억양, 리듬, 운율 등의 초분절음 요소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

Moray(1959)는 피실험자의 한쪽 귀에는 익숙한 영어 단어를 들려주고, 다른 쪽 귀에는 일반적인 문장을 들려주어 동시에 따라 읽도록 지시하였는데 피실험자는 익숙한 영어 단어에 방해 받지 않고 다른 쪽 귀에서 들리는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 들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따라 읽은 내용을 장기적으로 기억함을 발견했다. 이것은 쉐도잉 기법에서 청자의 집중력이 얼마나 요구되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실험이었다.

그리고 쉐도잉 학습법이 언어학 지식의 암시적 습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 Marslen-Wilson(1973)은 쉐도잉 발화에 대해 문장을 듣고 곧바로 이어서 따라하는 것으로, 들었던 문장에 대한 반응 시간은 254 밀리세컨드 정도로 짧아야 하며, 이 시간은 발화 음절사이의 연장시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이 문장을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그들은 통사론적, 의미론적으로 문장을 처리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초분절음 학습 측면에서 Nunan과 Miller(1981)는 발화된 내용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리듬, 강세, 억양 등의 초분절적인 발음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분절적인 발음 요소를 인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쉐도잉 학습법은 영어의 초분절적인 발음 요소가 영어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전달과 의미파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인식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oss와 Reitzel(1988)은 쉐도잉의 정의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며 소리 내어 따라 읽기, 즉 쉐도잉 학습법이 학습자들의 말하기와 발음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따라 말하면서 스스로 말하기에 대한 동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쉐도잉 학습이 어떻게 뇌 구조 상의 처리과정에 개입하는 지에 대해 연구한 Tamai(1992)는 쉐도잉이 학습자의 듣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점에 대해 언급했는데, 학습자가 입력된 소리를 바탕으로 뇌 구조에서 마이크로(micro) 수준의 상향식(bottom-up)처리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매크로(macro) 수준의 정보 인지 및 처리 과정을 거쳐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의 하향식(top-down)처리 과정이 활성화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입력된 소리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Ur(1999)는 학습자들이 영어의 강세와 억양, 리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잘못 알아듣고, 영어 듣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쉐도잉 학습법이 학습자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쉐도잉 학습법이 특히 영어 발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또한 영어를 배우는 일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Murphey(2001)는 대화 쉐도잉(conversational shadowing) 실험 연구를 통해 크게 쉐도잉의 네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냈다. 첫째, 유창

한 발음을 따라함으로써 쉐도잉을 하는 학습자 자체의 소리도 유창하게 들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스스로가 자신감을 얻게 된다. 둘째, 쉐도잉을 하게 되면서 원어민의 발화를 듣기도 하고 자신의 발화를 듣게 되어 동시에 두 번의 듣기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무의식적으로 목표 언어의 문장 구조와 억양, 패턴, 리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넷째, 보통의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자기 스스로가 처음으로 발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쉐도잉은 이러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개별 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 2. 쉐도잉 학습법에 대한 국내 연구

쉐도잉 학습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쉐도잉 학습법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대한 국내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쉐도잉 학습법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한 언어 기능, 쉐도잉 학습법의 구현 방법, 피실험자의 영어 능력의 수준 등에 따라 연구의 결과들이 다르게 나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쉐도잉 학습법이 영어 학습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쉐도잉 학습법과 발음 능력의 향상에 관한 연구 중 이나은(2010)은 쉐도잉 학습법이 중학생의 구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는 중학교 1학년 3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각각 10명씩 세 그룹(일반 CD카세트를 활용한 듣고 따라하기 활동을 하는 그룹, 쉐도잉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룹 수업을 한 그룹, 쉐도잉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 주도 학습을 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눔으로써 쉐도잉 프로그램의 학습 효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동일한 쉐도잉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그룹일 경우와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학습할 경우를 비교할 수 있었다. 위의 실험 결과, 쉐도잉 학습을 한 두 그룹이 그렇지 않은 한 그룹보다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림자처럼 따라하면서 원어민과 같은 발화를 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 발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 실험은 쉐도잉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학습자의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쉐도잉 학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고운(2008)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쉐도잉)를 활용한 듣기 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듣기, 발음 능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실험은 한국 대학

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듣기와 발음 능력의 향상을 동시에 보고자 한 실험이었다. 집단은 쉐도잉 학습을 실시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하였으며, 쉐도잉 학습의 교재로는 토익 듣기 평가 교재를 사용하였다. 수업은 듣기 문제를 풀고 난 후 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받아쓰는 과정을 통해 듣기 훈련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실험 집단은 쉐도잉을 통해 발음 훈련까지 하였다. 실험 결과, 쉐도잉 학습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듣기와 발음 능력이 더 크게 향상 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실험에서의 실험 대상자들은 영어 학습 집중도가 다소 높은 집단이어서 쉐도잉 학습에 대한 정의적인 태도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영어 듣기와 발음 평가에 대해 자신감과 흥미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었다.

고희정(2010) 또한 한국 대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쉐도잉 학습이 영어발음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고운(2008)과 다른 점은 실험 대상자를 수준별로 나눴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생 20명을 상, 하위 집단으로 각각 10명씩 나누어 실험을 하였고, 쉐도잉 학습을 위한 수업 자료는 학생들에게 친숙하며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 기초를 둔 의사소통중심에 초점을 맞춘 발음 교육을 하기 위해 미국 드라마를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쉐도잉 학습 전보다 학습 후의 영어발음평가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학습자의 수준별로는 상위 집단 보다 하위 집단의 영어발음평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서, 쉐도잉 학습이 하위 집단 학습자들의 영어발음에 더욱 큰 효과를 미친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으로 꼽았다. 이 실험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학습자들의 태도 변화이다. 학습자들 대부분이 쉐도잉 학습이 영어발음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쉐도잉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수현(2012)은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쉐도잉 기법을 활용한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상황적인 맥락을 이야기로 제시하는 쉐도잉 기법을 활용한 실험반과 그렇지 않고 단순히 목표가 되는 문장을 듣고 말하는 활동만 하는 비교반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대한 평가는 단어 시험으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와 이야기 말하기 시험을 통해 발음과 억양의 유창성을 평가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 비교반에 비해 실험반은 이야기를 이용한 쉐도잉 수업 덕분에 맥락과 함께 의사소통능력을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으며 말하기 활동도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 3. 영어의 리듬에 대한 선행 연구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실험 대상이 중학생과 대학생이 많았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영어의 리듬에 초점을 둔 실험이 아니었다. 또한 음성적인 분석 없이 원어민의 청취 평가로 학습자의 발음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는 점이나 지필평가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수업을 실시하는 연구로, 우선 리듬 학습 전/후의 학습자 발화 리듬을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측정하여 객관적인 리듬 지수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발화에 대한 원어민의 주관적인 청취 평가 점수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객관적인 리듬 지수의 변화가 얼마나 원어민의 주관적인 청취 평가와 상관성이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가 쉐도잉 학습을 통한 고등학생의 리듬을 분석하고, 음성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리듬 지수를 구해 청취 평가와의 상관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들 수 있다.

Derwing, Munro와 Wiebe(1998)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분절음의 교육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초분절음에 대한 발음 교육을 강화한다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Pennington과 Ellis(2000)는 초분절음에 대한 발음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발음 교육에 있어서 초분절음에 대한 관심이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이해와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Hahn(2004)은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 교육에 있어서 초분절음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적절한 초분절음이 구현된 발화는 대화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초분절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을 펴다. Anderson-Hsieh, Johnson과 Koehler(1992)의 연구와 Munro와 Derwing(2000), Derwing과 Rossiter(2003)의 연구에서도 초분절음에 대한 훈련을 받은 학습자들의 발화 이해가능성이 분절음에 대한 훈련을 받은 학습자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듬을 비롯한 초분절음에 대한 학습은 필요하고, 그 중 리듬의 변화가 이해가능성이나 청취 평가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의 리듬은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강도(intensity), 길이(length)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자에게 인지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듬의 범위를 길이로 한정한다. 영어의 리듬은 강세 간의 ‘등시간격성(isochrony)’을 보이는 ‘강세 박자 리듬(stress-timed rhythm)’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Crystal(1996)은 강세 박자 리듬을 가진 언어에서도 음절 수의 증가에 따른 길이의 증가를 준선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세 기반 리듬(stress-based rhythm)’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고, 본 연구도 그 입장을 따를 것이다.

Kim, Flynn과 Oh(2007), 김성아(2008), Jang(2008, 2009), 정현성, 장태엽, 윤원희, 윤일승과 사재진(2008), Jun(2008), Kim(2010) 등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리듬을 비교하거나,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리듬을 변이 지수 등의 리듬 측정 공식을 활용해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김금나와 정현성(2011)은 한국 대학생들의 읽기 발화와 자유발화에 따른 리듬의 차이를 역시 변이 지수를 활용해 분석하였고, 정현성(2013)은 타언어 화자와의 담화상에 나타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리듬에 관해 음절의 변이 지수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리듬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학습 활동을 투입한 후 리듬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변이 지수와 같은 리듬의 측정값과 원어민의 청취 평가를 함께 비교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전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북 제천시 소재한 S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영어에 흥미가 있으며 영어 발화 능력의 향상에 관심이 있는 영어 연극부 학생 중에서 무작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제천시의 중위권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이며, 영어 연극부 학생들의 영어 내신 등급은 2~6등급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는 한국에서만 영어를 습득한 학생들로 공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를 접한 학생들이다. 연구 대상자 그룹을 실험집단(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수업)과 비교집단(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리듬 수업) 각각 11명씩으로 나누어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 2. 사전·사후 평가 자료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발화에서 리듬을 관찰하기 위해 영어 리듬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는 연극 대본을 사전·사후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실험 대상자가 발화 유형보다 문장 강세 위주의 리듬 구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므로 자료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장을 실험 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극 대본 중에서 한 문장에 8~10개 정도의 음절이 있으며 내용어와 기능어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문장만을 골라서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평가 자료는 <부록1>과 <부록2>에 제시되어 있다. 더불어, 문장을 녹음할 때에는 학습자들에게 음향 프로그램을 테스트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연구자가 발화의 리듬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 3. 실험 수업에 사용되는 실험 도구

실험 수업의 교재는 Oxford University Press의 “Can You Believe It? (Book 1)”으로 선정하였다. 본 교재는 초급 수준의 ESL/EFL 영어 학습자를 위해 구성되어 실제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영어의 다양한 어휘와 함께 접할 수 있어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실험 대상자들의 영어 수준에 알맞고, 쉐도잉 학습 및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길이의 지문으로, 실험 수업의 교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교재를 선정하였다.

## 4. 쉐도잉 학습을 이용한 수업 방법 및 절차

실험집단에게 적용한 수업방법은 쉐도잉 학습을 이용한 수업으로 크게 도입(introduction), 전개(development), 정리(consolidation)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해당 차시의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문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고 내용 유추하기 활동과 몇몇 핵심 어휘에 대한 설명과 단어 강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지문 내용에 친숙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문을 들으면서 의미 단위로 끊어



보는 활동(chunking)을 하며 문장 강세를 찾아 표시하는 활동이 이뤄졌다. 두 번째 전개 단계에서는 쉐도잉 활동을 하는 단계로, 처음에는 0.8배속으로 정상속도보다 약간 느리게 발화하는 문장을 듣고 학습자가 크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활동(mumbling)을 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가 큰 소리로 따라해야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활동으로 본격적인 쉐도잉 활동 전에 입을 풀 수 있게 하는 몸풀기(warming-up) 단계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문장을 정상속도로 발화하지만, 문장사이에 휴지(pause)를 두어 좀 더 여유로운 쉐도잉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단체로 문장을 휴지 없이 정상속도로 발화하는 단체 쉐도잉 활동을 실시하였다. 쉐도잉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는 해당 차시의 지문을 최소 다섯 번씩 반복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라 반복 횟수는 조절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두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 쉐도잉을 한 후에 모둠별로 학생들끼리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문장에서의 영어 리듬의 패턴을 발견하는 활동을 하고 발견한 패턴에 대해 지도 및 피드백을 함으로써 해당 차시의 활동을 정리했다. 연구를 위한 실험은 일주일에 1번, 50분씩 총 8회, 총 400분의 리듬 수업을 실시하였다. 쉐도잉 활동 수업 절차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표 1. 쉐도잉 활동을 이용한 수업 절차

학습단계	단계별 활동 주제	교수-학습 활동 내용	시간
도입	지문 사전 검토	본 차시 지문에 대한 배경지식 활성화 및 단어 강세에 관해 간단 한 설명	7분
	듣고 의미 단위 나누기	지문을 들으면서 문장을 의미단위로 끊어보고 문장 강세 표시하기	3분
전개	단체 쉐도잉	0.8배 속도로 발화하는 문장을 들으며 중얼거리기	25분
		정상 속도이지만, 문장 간 휴지가 있는 발화 문장을 들으며 쉐도잉 정상 속도로 발화하는 문장을 들으며 쉐도잉	
정리	모둠별 쉐도잉과 패턴 찾기	두 모둠으로 나누어서 모둠별로 쉐도잉 실시하여 모둠별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발화 문장에서의 리듬 패턴을 발견하는 활동	15분

## 5.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수업 방법 및 절차

비교집단에게 적용한 수업 방법은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수업으로 쉐도잉 학

습을 이용한 수업과 마찬가지로 도입, 전개, 정리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쉐도잉 학습을 이용한 수업과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전개 단계로,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의 특성에 따라 원어인 발화의 휴지는 항상 제시되며 단지 처음 학습자가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속도를 0.8배속으로 늦춰서 따라 하기 활동과 정상 속도로 따라 하기 활동으로 구분하여 전개 단계를 진행하였다. 반복의 횟수는 최소 다섯 번으로 학습자의 요구대로 조절하여 반복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실험은 쉐도잉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번, 50분씩 총 8회, 총 400분의 리듬 수업을 실시하였다. 듣고 따라 하기 활동 수업 절차에 대한 교수 학습 내용은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표 2.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수업 절차

학습단계	단계별 활동 주제	교수-학습 활동 내용	시간
도입	지문 사전 검토	본 차시 지문에 대한 배경지식 활성화 및 단어 강세에 관해 간단한 설명	7분
	듣고 의미 단위 나누기	지문을 들으면서 문장을 의미단위로 끊어보고 문장 강세 표시 하기	3분
전개	듣고 따라 하기	0.8배 속도로 발화하는 지문을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기	25분
		정상속도로 발화하는 지문을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기	
정리	모둠별 활동과 패턴 찾기	두 모둠으로 나누어서 모둠별로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실시하여 모둠별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발화 문장에서의 리듬 패턴을 발견하는 활동	15분

## 6. 리듬의 측정

리듬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발화된 음성을 Praat 5.3.71을 이용해 분절음과 음절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음절의 경계를 구분할 때는 초성 최대화 원칙(maximal onset principle)에 따라 경계를 나누었고, 단어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음절의 경계가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 경계에 따라 개별 음절의 길이를 구해 리듬 측정을 위한 최초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분절음의 표기는 특수 기호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발음 기호를 ASCII 형식으로 전환한 PRAWNbet(정현성 등, 2008)을 사용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직접 녹음한 사전 발화 평가 첫 번째 문장 ‘Once upon a time, a beautiful princess was born.’ 음성 파일의 두 번째 억양구(IP: intonational phrase)인 ‘a beautiful princess was born’의 음성 파형, 스펙트로그램, 분절음과 음절 경계 및 분절음 표기를 보여주고 있다. 쉐도잉 학습에 참여

한 학생의 발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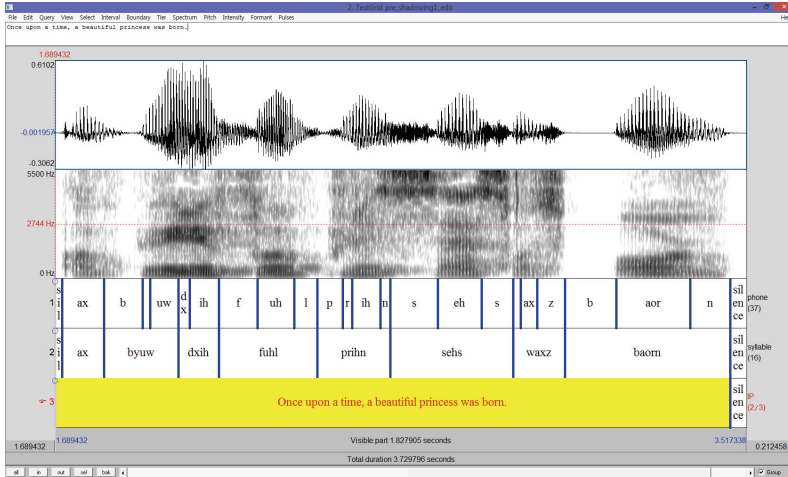


그림 1. 억양구 ‘a beautiful princess was born’의 음성 분석

리듬을 측정하기 위해서 Deterding(2001)과 정현성(2013)에서 사용한 것처럼 음절의 길이를 발화 속도에 대해 정규화한 후 음절 간의 길이 차이를 계산한 변이 지수를 사용하였다. 음절 간의 변이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VI = \frac{1}{n-2} \sum_{k=1}^{n-2} |d_{k+1} - d_k|$$

발화 말 장음화의 영향을 받는 마지막 음절을 제외하고 개별 음절의 원래 길이를 전체 음절의 평균으로 나누어 정규화된 음절 길이를 구한 후, 위 공식을 이용해 개별 음절 간의 길이 차이를 절대 값으로 환산해 그 평균을 계산 하면 발화의 음절 변이 지수를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발화된 전체 음절 가운데 마지막 두 음절은 변이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n-2$ 를 사용하게 된다. <표 3>은 <그림 1>에서 제시된 ‘a beautiful princess was born’의 음절 길이를 측정해 변이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억양구의 음절 변이 지수는 0.626인 것을 알 수 있다. 변이 지수가 크면 그만큼

음절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세 기반 리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인 경우는 음절 기반 리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3. 억양구 ‘a beautiful princess was born’의 변이 지수 계산

번호	발음	음절 길이(ms.)	정규화된 음절 길이	변이 지수 ( $ d_{k+1} - d_k $ )
1	ax	111	0.584	0.453
2	byuw	197	1.037	0.474
3	dxih	107	0.563	0.805
4	fuhl	260	1.368	0.353
5	prihn	193	1.016	0.689
6	sehs	324	1.705	0.984
7	waxz	137	0.721	
8	boarn			
평균		190		0.626

## IV. 연구 결과

### 1. 사전·사후 검사 문장에 대한 신뢰도

사전·사후 검사에서 사용되는 발화 문장(각 10문장)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해당 문장들에 대한 변이 지수를 추출하여 사전 검사 문장과 사후 검사 문장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사전·사후 검사 문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동질하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검사 문장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다.

표 4. 사전·사후 검사 문장에 대한 신뢰도

검사값	평가 문장	n	평균	표준편차	df	t	Sig.
변이 지수	사전 검사 문장	10	0.367	0.081	9	-0.132	0.197
	사후 검사 문장	10	0.376	0.062			

## 2. 집단 동질성 검증

실험 시작 전 실험반과 비교반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변이 지수와 원어민의 청취 평가의 값(10점 만점)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이용하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 간 동질성 검사 결과

검사값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f	t	Sig.
변이 지수	쉐도잉	11	0.414	0.072	20	-0.194	0.104
	듣고 따라 하기	11	0.419	0.051			
원어민 청취 평가	쉐도잉	11	4.55	1.29	20	-0.190	0.278
	듣고 따라 하기	11	4.64	0.92			

## 3. 채점자 신뢰도 검증

학생들 발화의 변이 지수가 실질적으로 원어민 화자에게도 신뢰성 있는 값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두 명의 원어민 청취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발화를 원어민에게 들려 준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절음 보다는 초분절음, 즉 리듬에 맞게 학생들이 발화했는지에 대한 여부만을 고려한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하여 청취 평가를 실시하였다.

두 원어민 채점자의 청취 평가 점수(10점 만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r=0.707$ 로 두 채점자 분석 결과 간의 신뢰도는 높았다.

표 6. 기술 통계 및 채점자 간 상관관계

채점자	n	평균	표준편차	채점자간 신뢰도( <i>r</i> )
원어민 A	44	5.59	1.70	0.707
원어민 B	44	5.50	1.83	

#### 4. 실험수업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각각 다른 수업 방식으로 리듬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발화가 좀 더 강세기반 리듬을 지닌 발화로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이 지수와 원어민 청취 평가 점수(10점 만점)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값을 대응표본 *t*-검증을 이용하여 실험 수업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각 실험 수업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값

검사값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f	t	Sig.
변이 지수	쉐도잉 처치 전	11	0.414	0.072	10	-5.833	0.000
	쉐도잉 처치 후	11	0.564	0.065			
원어민 청취 평가	쉐도잉 처치 전	11	4.55	1.29	10	-4.707	0.001
	쉐도잉 처치 후	11	6.73	1.73			
변이 지수	듣고 따라 하기 처치 전	11	0.419	0.051	10	-4.494	0.001
	듣고 따라 하기 처치 후	11	0.521	0.073			
원어민 청취 평가	듣고 따라 하기 처치 전	11	4.64	0.92	10	-3.975	0.003
	듣고 따라 하기 처치 후	11	6.09	1.51			

$p < .05$

위의 표와 같이 유의 수준 0.05에서 두 가지의 실험 수업의 효과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쉐도잉 학습법이 듣고 따라 하기 학습법보다 더 유의미한 효

과를 지녔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학습법의 변이 지수와 원어민 청취 평가 점수로 독립 표본 *t*-검증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두 학습법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결과 값

검사값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df	t	Sig.
변이 지수	쉐도잉	11	0.564	0.065	20	1.461	0.160
	듣고 따라 하기	11	0.521	0.073			
원어민 청취 평가	쉐도잉	11	6.91	1.51	20	1.268	0.219
	듣고 따라 하기	11	6.09	1.51			

p<.05

위의 표와 같이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값이 수치상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인 쉐도잉 학습법의 효과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비교집단인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집단과 실험집단인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집단의 평균차를 Cohen(1988)의 *d*-지수로 표준화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d*-지수는 0.62의 효과 크기를 보였다. Cohen(1988)의 효과 크기 기준에 따르면 효과 크기 계산 결과 *d*-지수가 0.2 이하 일 경우는 효과 크기가 작고, 0.5는 중간 크기이며, 0.8 이상은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본다. 따라서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집단과 비교하여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수업 처치의 효과는 중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수업 방법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 따라 각 수업 처치 전-후의 평균차를 Cohen(1988)의 *d*-지수로 표준화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집단의 *d*-지수는 2.2의 효과크기를 보였고,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집단의 *d*-지수는 1.5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따라서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수업방법의 효과크기가 더 크지만, 결국 각 수업 방법 모두 처치 전에 비해 처치한 후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5. 변이 지수와 원어민 청취 평가 점수와의 상관관계

다음은 변이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발화가 좀 더 리듬감이 나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어민 청취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두 결과 값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표 10>과 같다.

표 9. 변이 지수와 원어민 청취 평가 점수와의 상관관계: 사전

		변이 지수	원어민 청취 평가
변이 지수	Pearson 상관계수( $r$ )	1	0.875
	유의확률(양쪽)		0.000
	N	22	22
원어민 청취 평가	Pearson 상관계수( $r$ )	0.875	1
	유의확률(양쪽)	0.000	
	N	22	22

표 10. 변이 지수와 원어민 청취 평가 점수와의 상관관계: 사후

		변이 지수	원어민 청취 평가
변이 지수	Pearson 상관계수( $r$ )	1	0.821
	유의확률(양쪽)		0.000
	N	22	22
원어민 청취 평가	Pearson 상관계수( $r$ )	0.821	1
	유의확률(양쪽)	0.000	
	N	22	22

위의 표에 따르면 변이 지수와 원어민 청취 평가 점수 간의 상관계수( $r$ )는 모두 0.8이상의 값으로 유의 수준 0.01에서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원어민이 청취 평가를 했을 때 학생들의 변이 지수 증가를 리듬감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수업과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리듬 수업을 실시하여 두 수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교육과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리듬 교육이 모두 학습자의 리듬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원어민 청취 평가의 점수와 리듬을 실제로 측정한 음절 변이 지수가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수업의 경우, 듣고 따라 하기 방법을 이용한 리듬 수업에 비해 사전-사후 변화가 근소하게 더 크지만 통계적으로는 두 수업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두 수업 방법 모두가 리듬 교육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Cohen(1988)의  $d$ -지수를 이용하여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리듬 수업에 비해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수업의  $d$ -지수는 0.62로 중간 크기의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각 수업의 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수업의  $d$ -지수는 2.2이며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리듬 수업의  $d$ -지수는 1.5로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수업의 효과 크기가 더 크게 나왔다. 즉, 두 수업 방법 모두 리듬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며 효과 크기 측면에서는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교육의 효과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쉐도잉 학습법이 학습자 개인의 억양, 리듬 및 개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학습 활동으로 원어민의 발화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학습자가 무의식적으로 좀 더 강세 기반 리듬에 가까운 발화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또한 듣고 따라 하기 활동도 리듬 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두 학습법의 공통된 특성을 살펴보면, 학습자에게 원어민 발화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그 발화를 따라하면서 최대한 원어민의 리듬에 가깝게 구현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특성이 학습자에게 작용하여 리듬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통계적으로 원어민의 청취 평가 값과 변이 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학

연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음성의 리듬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변이 지수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원어민이 듣기에도 리듬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어민 발화의 특징인 강세 기반 리듬은 음절 기반 리듬보다 상대적으로 음절 간의 길이 차이가 큰 편이며 이러한 특징을 수치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변이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고 수치화한 변이 지수가 실질적으로 리듬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진정한 “통제그룹” 없이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두 그룹에서의 학습 효과가 처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른 일반적 영어 능력 향상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 이것은 학생들의 영어 발음의 리듬 향상이 이 두 가지 학습 방법 때문이라고 결론 짓기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수업 방법과 듣고 따라 하기 활동을 이용한 수업 방법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효과적인 리듬 수업 방법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수업 방법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이유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각각의 처치 수업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해서 실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즉, 실험 대상자들 중 쉐도잉을 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듣고 따라 하기의 형태로 따라하는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 따라서 원어민의 발화를 들으면서 다음 문장을 쉐도잉해야 하는 순간에 따라하지 못한 이전 문장을 자신의 속도로 되뇌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또한 그 반대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듣고 따라 하기 활동 도중 쉐도잉이라는 학습 방법을 따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나 전략적으로 쉐도잉을 하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 수업이 진행되면서 통제를 가하자 감소하긴 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 해당 수업과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수업 방법을 실험하는 데 있어 개별 수업이나 짝 활동과 같은 방식을 통해 해당 실험 수업 방법의 특성을 극명히 나타낼 수 있고, 학습자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쉐도잉을 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해 고려

하지 않았다. 부차적 요인으로는, 학습자가 쉐도잉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Baddeley(2007)에 의하면, 쉐도잉을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이 들은 것을 판단하여 그것을 음운론적 형태로 전이시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바로 작업기억에서 이뤄지는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작업기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쉐도잉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그들이 집중하는 발화를 인지하여, 그들의 작업기억의 공간을 늘려 머리 속에서 인지하는 음운론적인 정보를 담기위해 지속적으로 발화를 되새긴다. 이러한 과정도 작업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Kadota, 2007). 또 다른 부차적 요인으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쉐도잉과 점화효과(priming effect)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점화효과는 이전에 노출되었던 언어가 나중에 인지되는 언어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Nakayama와 Armstrong(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이전에 목표언어의 노출이 충분히 많이 있었던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 쉐도잉을 통해서 듣기 능력 향상도가 더 컸다는 것을 도출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언급된 두 가지 요인 뿐 아니라, 학습자의 영미 문화에 대한 친숙도에 따른 영어의 관심도 및 흥미와, 언어 능력 중에서 말하기 및 발음 능력 습득의 우월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실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쉐도잉 과정 중에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향상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학습 동기가 낮지 않았고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높은 편인 중상위권의 학습자들이었다. 즉, 본 실험의 결과를 모든 고교 영어 학습자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즉 영어 언어 영역 중에 발음 교육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쉐도잉 학습법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 되는 듣기 영역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많이 도출되었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듣기 뿐 아니라, 말하기와 더 나아가 쓰기 영역에도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희정. (2011). *새도잉(Shadowing) 학습이 한국대학생의 영어발음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금나, 정현성. (2011). 읽기 발화와 자유발화에 따른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리듬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5(1), 25-56.
- 김성아. (2008). 강세 박자와 음절 박자 언어에 대한 재고: 한국인 영어 화자의 리듬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4(3), 473-493.
- 안수현. (2012). Story Shadowing 기법을 활용한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 방안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이고은. (2008).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Shadowing)를 활용한 듣기 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듣기, 발음 능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나은. (2010). *Shadowing 학습법이 중학생의 구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전남.
- 정현성. (2013). 타언어 화자와의 담화 상에 나타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리듬. *말소리와 음성과학*, 5(3), 3-10.
- 정현성, 장태엽, 윤원희, 윤일승, 사재진. (2008).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음 정확성 자동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42, 165-196.
- 정현성, 정소현. (2008). 영어발음교육에 대한 현직 교사 요구조사. *현대영미어문학*, 26(3), 129-164.
- Anderson-Hsieh, J., Johnson, J. R., & Koehler, K.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ve speaker judgements of nonnative pronunciation and deviance in segmentals, prosody, and syllable structure. *Language Learning*, 42(4), 529-555.
- Baddeley, A. (2007). *Working memory, thought, and 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rystal, D. (1996).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nglish rhythm. In M. Vaughan-Rees (Ed.), *Changes in pronunciation, special issue of speak out!* IATEFL, (pp.8-13).

- Derwing, T. M., & Rossiter, M. J. (2003). The effects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on the accuracy, fluency, and complexity of L2 accented speech. *Applied Language Learning, 13*, 1-17.
- Derwing, T. M., Munro, M. J., & Wiebe, G. E. (1998). Evidence in favor of a broad framework for pronunciation instruction. *Language Learning, 48*, 393-410.
- Deterding, D. H. (2001). The measurement of rhythm: A comparison of Singapore English and British English. *Journal of Phonetics, 29*, 217-230.
- Foss, K., & Reitzel, A. (1988). A relational model for managing second language anxiety. *TESOL Quarterly, 22*(3), 455-472.
- Hahn, L. D. (2004). Primary stress and intelligibility: research to motivate the teaching of suprasegmentals. *TESOL Quarterly, 38*(2), 201-223.
- Jang, T.-Y. (2008). Rhythm metrics of spoke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46*, 169-186.
- Jang, T.-Y. (2009). Automatic assessment of non-native prosody using rhythm metrics: Focusing on Korean speakers' English pronunciatio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n Linguistics, Canada*.
- Jun, H.-S. (2008). Rhythm metrics and second language speech: Korean learners of English.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Empirical Approaches to Speech Rhythm (EASR08), UCL, London.
- Kadota, S. (2007). *Shadowing to ondoku no kagaku* [Science of shadowing, oral reading, and English acquisition]. Tokyo: Cosmopier.
- Kim, J.-H. (2010). *A comparative study on vowel differences between spontaneous speech and read spee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Kim, J.-M., Flynn, S. & Oh, M. (2007). Non-native speech rhythm: A large-scale study of English pronunciation by Korean learner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3*(2), 245-275.
- Marslen-Wilson, W. (1985). Speech shadowing and speech comprehension. *Speech Communication, 4*, 55-73.

- Moray, N. (1959). Attention in dichotic listening: Affective cues and the influences of instructions.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1, 56-60.
- Munro, M. J., & Derwing, T. M. (2000).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in the speech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45(1), 73-97.
- Murphey, T. (2001). Exploring conversational shadowing. *Language Teaching Research*, 5(2), 128-155.
- Nakayama, T., & Armstrong, T. (2011). Weak forms in shadowing: How can Japanese EFL learners perform better in shadowing tasks? Paper presented at Japan Association for Language Teaching (JALT) International Conference, Tokyo.
- Nunan, D., & Miller, L. (1995). *New ways in teaching listening*. Bloomington: Pantagraph Printing.
- Pennington, M. C., & Ellis, N. C. (2000). Cantonese speakers' memory for English sentences with prosodic cu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4(3), 372-389.
- Tamai, K. (1992). *The effect of "shadowing" on listening comprehen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chool of International Training, Brattleboro, Vermont.
- Ur, P. (1999).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부록

### 1. 사전 발화 평가 문장

※ 다음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 보세요.

1. Once upon a time a beautiful princess was born.
2. They invited all the good fairies in the land.
3. One by one, each fairy gave the baby princess a gift.
4. So you didn't invite me!
5. She will prick her finger on a spindle and die.
6. I'm very sorry, please break your spell.
7. Can you break the spell, Good fairy?
8. I can't break the spell, but I can make it better.
9. The princess will not die, but she will sleep.
10. Burn all the spindles in the land!

### 2. 사후 발화 평가 문장

※ 다음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 보세요.

1. Once there lived a poor shoemaker.
2. Are you going to make the shoes tonight?
3. I will make the shoes tomorrow morning.
4. The shoemaker and his wife went to bed.
5. The next morning, the shoemaker was amazed.
6. That day, two customers came into the shoemaker's shop.
7. And the shoemaker sold the beautiful shoes.
8. He bought more leather with the money.
9. There are two pairs of beautiful shoes this morning!
10. The shoemaker sold the shoes straight away.

<Korean Abstract>

김미선, 정현성. (2014). 쉐도잉(Shadowing) 활동이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리듬 학습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연구*, 28(2), pp.433-457

본 연구는 쉐도잉 학습법을 이용한 리듬 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학습자의 리듬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쉐도잉 학습과 듣고 따라 하기 학습을 통해 리듬 수업을 받을 학생들의 발화를 녹음하여 음절의 변이 지수를 구해 리듬의 변이 지수가 향상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원어민들의 청취 평가 점수를 통해 주관적인 리듬의 향상 정도도 평가하였다. 음성적인 분석을 통한 음절의 변이 지수와 주관적인 리듬 평가 점수는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쉐도잉 학습과 듣고 따라 하기 학습을 받은 두 집단 모두 음절 변이 지수와 청취 평가 점수에서 향상된 성과를 보였으며, 효과 크기 면에서는 쉐도잉 학습을 받은 집단이 다소 더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쉐도잉 학습법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리듬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또 음절의 변이 지수가 청취 평가와 상관관계가 크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음절의 변이 지수가 리듬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Key words: English rhythm, Pronunciation, English education

영어 리듬, 발음, 영어 교육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Secondary

Kim, Mi Seon

Semyung High School

88 Semyungro, Jecheon, Chungbuk, Korea 390-230

TEL: (043)-643-5717

E-MAIL: ddalgee1004@hanmail.net

Chung, Hyunsong,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English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Heungdeok-gu, Cheonju-si  
Chungbuk, Korea 363-791  
TEL: (043)-230-3554  
E-MAIL: hchung@knue.ac.kr

received in June 28,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August 01, 2014  
revised version accepted in August 11, 2014

